Fixed Income

Hike Signal

- 한은 부총재 "5월 금통위에서 인상 시그널 나올 가능성", 하반기 인상 시사
- 근거 1) 성장 보다 물가에 더 부담되는 환경 2) 예상보다 반도체 장기 호황
- 하반기 1회 인상(26년말 韓 기준금리 2.75% 예상). 2회 이상은 불확실성 커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한은 발(發)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 시사, 사실상 하반기 금리 인상 신호

한국은행이 본격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실상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남겼다.

이에 당사는 올해 중에 기준금리가 연간으로 동결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하반기 1회 인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2026년 연말 한국 기준금리 2.75% 예상).

"5월 금통위에서 인상 시그널 나올 가능성"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찾은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최신 물가 및 성장 경로를 확인한 결과 5월 금통위에서는 인상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의 경우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을 감안해도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 부총재는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실제 금리 결정에 참여하는데, 최근 금통위원이 공개 발언을 통해 금리 인상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보다 물가에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해 + 반도체 기존보다 장기 호황 가능성

유 부총재는 "4월 금통위 당시에는 중동 전쟁 직후여서 성장 하방 및 물가 상방을 모두 고려하면서 금리를 동결했다"며 "4월 이후에는 지금까지 상황을 감안하면 경기보다는 물가에 부정적 측면이 더 강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작년 말까지는 금통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인하하고 인하 사이클을 마무리해도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는데, 올해 여러 상황이 바뀌고 특히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고민이 커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오일 쇼크는 물가를 올리고 경기는 나쁘게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좀 더 확인해 봐야겠다는 스탠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지만 느닷없이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좋아지고, 정부 부양책으로 소비심리도 크게 회복했다"며 "경기가 애초 우려보다 크게 나빠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들을 종합할 때 유 부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1) 성장률이 예상보다 덜 떨어지는데 반해 물가는 더 상승 2) 반도체 사이클이 기존에 비해 더 장기적으로 호황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하반기 기준금리 1회 인상 전망. 2회 이상은 아직 불확실성 부담 커

당사는 유 부총재의 발언에 대해 사실상 통화당국 차원에서의 금리 인상 시그널이며, 해당 발언 수위나 어휘를 감안할 때 추후 인상이 없다면 오히려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강력했다는 견해다.

아울러 ADB 연차 총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총재가 참석하는 일정이란 점에서 유 부총재가 실제 총재의 역할이나 대표성을 부여 받았다는 점도 발언 자체의 무게를 더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당사는 여전히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이 "연내 2번 이상과 같은 사이클을 형성하는 인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 인상 횟수는 1회로 제한, 제시하고자 한다.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공동락)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